

연중 제 7 주일

기도서 P 352 A 해

제 1 독서 (레 위 19, 1-2, 17-18)  
제 2 독서 (고린전 3, 16-23)  
복 음 (마 태 5, 38-48)

# 숲 정이

발행처 전주교 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④ 2935 ⑤ 5098

□강 톤



## 비닐 봉지에 넣어온 미사 예물

이 태 주 신부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산양을 가지고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며, 용서한 할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하라고 하신다. 이것은 계명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이 지녀야 할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 그리스도가 비유를 쓰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3가지 있다. 바로 지옥 형벌에 대한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나쁜 표양으로 남을 죄짓게 하며, 남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 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 할 것인가? 먼저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자. 우리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쉬우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 자신은 더 심각한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깨우쳐가며, 남에게 피해를 받더라도 주의를 다른데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고 분노를 가라앉혀 하느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다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타인의 잘못을 시정해줄 때라도 친절하며 이해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컵의 꿀이 한 통의 식초보다 더 효력있다”고 성 프란치스코는 말한다. 빗제는 잘못해서 남과 다투었을지라도 그와 화해하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시오”(마태 5장 25절)

끝으로 자신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기도는 반목과 증오의 모든 나쁜 감정을 없애주는 틀림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의 순간이다.

지난주 비닐봉지에 든 동전 한줌을 미사예물로 받았다. 교통사고로 4대 독자를 잃은 부모가 보낸 예물이었다. 나는 믿는다. 두 손을 모아 하느님께 죽은 자식의 명복을 비는 부모는 분명히 사고를 낸 운전사를 용서했으리라고... 죽은 외아들의 유품인 저금통을 털어 보낸 부모는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했으리라고...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오룡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 봄이 오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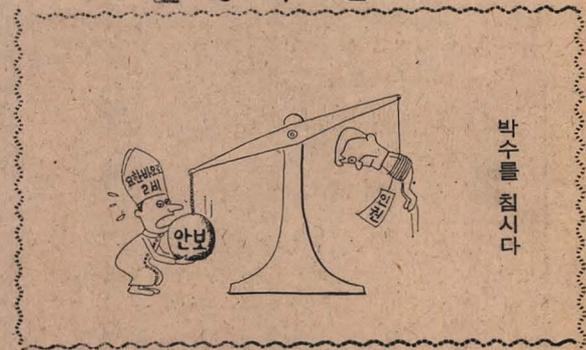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것들이 녹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얼부풀었던 대지가 내려 앉아 문여닫기도 수월해졌다. 어찌나 추웠던지, 방한 설비가 허술할 부엌의 물버리는 파이프를 메운 얼음을 녹여 보려고 무진 애를 써도 허사더니, 봄이 오는 소리에 맥을 못추고 가라 앉고 말았다. 자연의 신비가 그렇게도 위대한 줄을 또 한 번 배웠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inne, 버터나가가에 위 아랫 나가 덜덜 떨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훈풍이 우리를 달래준다. 밤이 길으면 새벽은 찾아 오기 마련이다. 어김없이 해는 뜨고, 영락없이 계절은 바뀌기 마련이다. 누가 다가 오는 죽음을 기피할 수 있으며, 누가 떠오르는 저 달을 묶어둘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는 일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연의 법칙을 바꿔보겠다고 길질이 뭐는 미친 짓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 가끔 있다. 언제까지고 죽지 않을 듯 살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흙을 뒤집어 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다. 추위를 버터내다 보면 따스함이 우리를 반기지만, 사람 못된 친구에게서는 세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기가 힘이 든다. 저만 잘살고 편하겠다는 이기심은 죽는 순간에야 버려진다는 말이 꼭 맞다. 그렇다고 눈 시퍼렇게 뜨고 뿔뿔이를 하는 친구의 죽음이나 기다리고 있기도 민망하기 그지 없다.

앞으로 열흘이면 사순절이 시작된다. 또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양심의 거울을 말갭게 닦아 놓고 기다리자. 후시라도 뜨는 해를 붙잡아 두겠다고 발버둥치 지나 앉았는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고향 길을 닦아보자.

## 숲 정이 산책



#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준비위원회 결성

1984년 한국 천주교회의 뜻깊은 200주년 기념을 앞두고 실시 될 각종 중요 행사, 회의,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본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구 준비 위원회를 결성, 그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번 새로 위촉된 (교구공문 81-10호) 위원들과 첫 회합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교구 준비 위원 명단(19명)

성직자 : 김환철(교구 사무처장), 황인규(사제 평의회장), 김병엽(본당신부 대표), 김진소(교회사 연구위원), 엄기봉(액선지도 대표), 유영도(보좌신부 대표),

수도자 : 김원식(성체회), 최영자(성가회), 신길자(성바오로회),

평신자 : 조성호(평협 회장), 김병구(평협 부회장), 이현재(평협 부대표), 이태영(성지개발위원), 이종두(본당 대표), 양상렬(법조인), 이흥재(교수), 김정생(신협), 안득수(의사), 김을태(약사),

## 2. 교구 준비 위원회 개최

일시 : 1981년 3월 1일(일) 오후 3시

장소 : 교구청 회의실

# 성모 병원에 새 전문의(專門醫) 부임

지난 79년 8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 임시 규모를 축소, 새로운 전기를 모색해 오던 전주 성모병원이 차츰 상가도 정비되고 새 건물을 신축해 갈에 따라 다시 교회 본연의 병원 취지를 쫓아 조금씩 체계도를 갖춰가고 있다.

구로(救療)와 자선복지(慈善福祉)라는 박애(복음) 정신에 입각한 교회 병원 존재, 유지의 필요성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들어 왔고 절감해 왔다. 그래서 장차 원대한 이천 계획에 앞서 우선 단계적으로 현 위치에 서나마 진료와 의료 시혜(施惠)의 구실을 중단 없이 해드리고자 다시 내과(內科), 외과(外科), 소아과(小兒科) 등 필요한 진료과와 담당 전문의들을 두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부터는 본 병원에 새 내과 전문의가 부임, 진료를 맡기 시작 했고 곧이어 외과 전문의도 부임; 차차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사선실, 검사실(병리과), 약제실 등도 확장, 담당 수녀님들과 책임자들을 보완 할 예정이다.

모쪼록 교구내의 모든 교우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 진료에 본 병원이 다시 따뜻하고 사랑찬 인술(仁術)을 펴 크고 기쁜 보람을 가득 안겨주길 빌어마지 않는다.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최 남 수(아블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 들을 귀

### 목적 의식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물어보자 산 꼭대기에 올라, 두 발에 힘을 주고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모르면 묻지 말라고 대답할 게다. 눈이나 발에서 그것도 땀밖에 일하는 농부, 비집고서라도 할려고 안간힘을 쓰는 학생이나 공무원, 장사하는 아주머님들... 다시 말해 모든이가 부단하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이다.

믿음에도 목적이 있다. 어떤이는 재난을 피하려고, 아니면 마음의 평화 내지는 사귀를 갖고 싶다는 등 십인십색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뚜렷한 공통된 전제는 현재보다는 좀더 낮게 살려 한다는 점이다. 삶을 더욱 값지게, 멋있고 풍부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갖고 싶다는 것이다. 완전해지고 싶다는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의 본성은 처지를 훨씬 벗어난다. 한계속에 머물면서도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을 항상 갈구한다는 것이다. 참되고 진실되며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아닌가? 여기에 종교의 큰 역할이 있다. 참된 삶(True life)과 영원한 삶(Eternal life)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한편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똑같이 바라면서! (박종상 신부)

## 교회상식 ②

### 제 대(祭臺, 祭壇)

성당의 중심은 제대이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사용하신 식탁 모양의 석상이다. 제대는 보통으로 돌로 만드는데 이것은 갈라리아산을 상징하고, 거룩한 바위이신 그리스도를 표시한다.

제대판에는 십자가가 다섯개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상(두손, 두발, 늑방 상처)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대마다 성인 유골을 모셔두는데(성서) 전에는(로마 박해시) 치명자들을 까타콤바(지하교회)에 묻고 이 묘위에서 미사를 거행했기에 제대를 표시하는 그리스도와 유골의 주인과 긴밀한 일치로 표시함에 그 뜻이 있었다.

제대 위에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사성체가 십자가 체사와 같은 제사라는 의미에서이며 제대 양편에 있는 돌이나 혹은 여섯개의 촛대는 까타콤바에서 미사드릴때 어둠기에 사용한 띠서 시작되었다. 또한 촛불은 신앙의 열렬한 사랑과 신자들의 거룩한 기쁨도 의미하며 사제를 존경하는 뜻도 되며 주께서 세상을 피추심을 상징한다.

제대에는 백포 3장을 까는데 제일 위에 덮는 제대보는 양쪽이 땅에 닿도록 하며 이는 제대의 깨끗함과 숭고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혈을 쏟을 경우 이를 받기 위해서며 주님의 시체를 염했던 염포도 상징한다.

제대의 중요한 부분은 감실이며 감실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셔두는 제대의 심장부이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성당 안에서 존경을 나타내며 잡담을 아니하고 제대 앞을 지날때 절을 하며 지나가야 한다. 이는 감실 안에 모셔둔 성체안에 주님을 공경하며 경배하기 때문이다.

(김기수 신부)

##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위한 연수회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에서는 1981년도 각 본당 아동 주일학교 새학기를 위해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구별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연수회는 각 본당 아동 교리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신앙교육과 실질적인 교리 교수법 및 아동심리 등 여러 분야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마련했다.

특히 본당별로 통일되지 못한 교재에 따라 생기는 제반 아동교육 문제를 감안, 교재 통일과 활용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자.

1차-일시: 1981년 2월 23일~25일까지(월·화·수)

대상: 전주·이리·군산·고산·삼례지구 본당 및 공소 주일학교 교사 및 담당수녀

2차-일시: 1981년 2월 26일~28일까지(목·금·토)

대상: 1차 이외의 지구내 본당 공소 교리교사 및 담당수녀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접수는 첫날 오후 1시부터

## 제2지구 울뜨레아 모임, 성황리에 마쳐...

지난 15일 제2지구(군·읍지구 5개본당) 각 본당 꾸르실리스타들이 모여 지구 울뜨레아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월명동 본당에서 개최된 제2지구 울뜨레아는 2지구 꾸르실리로 지도 신부이신 이태주 신부님 지도아래 86명의 꾸르실리스타들이 모여 성체 조배와 강의 및 토론이 2부로 나누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새로 탄생한 꾸르실리스타들에 대한 환영식과 각 본당 활동상황 보고에 이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의 4월 모임은 대야 본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꾸르실리를 장려하고 있는 교구 방침에 호응하여 각 지구별 울뜨레아 모임이 절실한 이때 금번 제2지구 울뜨레아 모임은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 ※ 협조 바랍니다

—하루 앞당기는 힘을—

교구 주보인 본 윤정이는 사목국에 이관을 제기로, 보다 폭 넓은 편집과 내용의 다양성을 기하고 교구, 본당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므로써 명실공히 교구보(敎區報)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모든 원고는 1주일전에 보내 주시고(강론, 미담, 본당소식, 특별기사, 소식 등)
2. 각 본당, 단체 등의 공지사항(4면)은 화요일까지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며(월요일 아침에 발송 바람)
3. 개인 원고나 투고 등, 역시 1주일 전에 보내 주시므로써, 애타는 시골 공소에서 윤정이를 제때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이 편집실>

## 윤정이 (394) 김병오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이 마리아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치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축약국 옆  
전화 ④4451 율리안나

## 이전 확장 개업

## 대한체육사

테니스용품 일체, 샹페, 명패, 컵, 등산장비  
체육복(유리닝), 트로피, 페넌트, 우승기,  
타올, 쇼핑백, 탁구대, 태극기, 외자종기,  
운동기구 일체, 로라스케이트

대표소병기(페드로)

이리시 창인동 1가 179-1 (구·군청옆)

전화 ④9887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 오 가시미로 신부 영명축일(재의 수요일) 행사를 3월 1일로 변경합니다
- 2. 중·고등학생 연합회 정기총회...오늘 오전 10시 ※ 참가비-1,000원
- 3. 제22대 4지구 중·고등학생 정기총회...3월 1일(일) 오후 5시, 복자성당에서.  
※ 입회보자는 본당 신부님의 추천서를 받아 당일까지 제출요,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저희 전동 대학생회가 이미 발족하였으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살핌이 있어 한솔야학교도 한결유색 발판을 굳혀 놓고 있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희경  
사도 회장

- 1. 가정방문: 21일 9시30분-금암동·인후동  
3월3일 9시30분-진북동·중노동 등
- 2. 주일학교 졸업식: 2월28일 4시30분-성당
- 3. 남자 2편 대회: 2월27일~3월1일 서울 삼레지오 회관, 참가 희망자는 박인호 신부님과 면접 바람
- 4. 흠배조당자 관면 상담: 2월21·28일 오후3시
- 5. 연도대회: 3월22일 각신심단체대항 감사합금-금암 익명(20,000원)
- 6. 사순절 안내(재의 수요일부터)
  - ① 3월4일 아침·저녁미사에 "재"를 받아 속죄하여 부활을 준비합니다
  - ② 재의 수요일은 "금식과 단식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 회생을 다음주일 봉헌합니다
  - ③ 사순절동안 매 금요일 미사후에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 ④ 작년에 받아가신 "성지 가지"는 2월3일까지 사무실에 가져 오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402,21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나영  
보좌 신부 박정준  
사도 회장

-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후
- 2. 베소라 성서 강의: 매주(화) 저녁7시30분~9시30분
- 3.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매주(월) 오후2시부터
- 4. 지난주의 예비자 봉헌: 25명, 1년중에 1명 이상의 예비자를 꼭 봉헌합니다
- 5. 금주의 성경 읽기: 신약의 마르코복음 전체
- 6.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253,26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영기도  
보좌 신부 유성양  
사도 회장

- 1. 오늘 미사후 진복회 모임: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 바람
- 2. 차주 사도회 월례회의: 구역장·반제임 꼭 참석바람
- 3. 성지가지 수요일까지 본당으로 보내주세요  
3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 4. 주일학교 개학: 교리 주일 오후2시, 미사-3시 많은 어린이 보내주세요
- 5. 중·고생 미사: 주일 오전9시 공식미사에 참석 마시고, 9시미사 이용하세요
- 6. 오늘부터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교리 있습니다  
첫 영성체할 어린이 신청 바람
- 7.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예물: 206,000원

□ 지난주 봉헌금: 386,03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희택  
보좌 신부 김희성  
사도 회장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 2. 3월4일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  
성지가지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 3. 교리교사 1차 동계 연수회: 23일~25일,  
2차 동계 연수회: 26일~28일
- 4. 학생회 연수회: 2월27일 오전 9시30분,  
장소-본당, 참가비-500원
- 5. 학생회: 총별 및 신입생 환영회-3월1일

□ 지난주 봉헌금: 351,8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2. 유아세례: 다음주일 공식미사전(미리 신청 바람)
- 3. 울드레아 모임: 24일(화) 저녁미사후 7시30분
- 4. 중·고생 연수회: 2월25일~26일까지
- 5. 다음주일 미사시간: 새벽 6시30분(월~금)  
교리교사 연수회 관계로 저녁미사 없음
- 6. 다음주일 전례담당  
독서-①김낙환 ②김나섭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 7. 애령회: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78,906원 교무금: 99,300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주일학교 아동 졸업식 미사: 2월21일 오후3시
- 2.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 3. 사도회 임원 레지오 회합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 4. 숲정이 신동 협동 조합 정기총회: 2월22일 11시30분  
T 유치원에서, 조합원 통장-인장을 지참 바랍니다
- 5. 다음주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김영채·이용진, 기도-이종욱

□ 지난주 봉헌금: 284,74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 2. 유아세례: 다음주(3월1일) 9시미사후
- 3. 봉성체일: 매월 첫주(화·수)요일
- 4.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나 병석에 누워계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배성가대 지정: 1·2주-어머니성가대,  
3·4·5주-청년성가대, 평일-어머니성가대
- 6. 교무금 미신입자는 빨리 신입해 주세요
- 7. 주일학교 교과서 판매: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가격-800원
- 8. 주일학교 졸업식: 9시미사중에
- 9. 저희 대학생회에서는 신자 및 예비신자 대학생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미사후, 보좌신부님방>
- 10. 전례담당(3월 1일)  
아침미사: 해설-박중구, 독서-①이주영 ③최병례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덕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이진용

□ 지난주 봉헌금: 476,21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1. 부녀회 총회 개최: 2월27일(금) 오전10시 미사후
- 2. 유아세례: 오늘 오후3시 미사후
- 3. 수녀원 신축기금: 구세주의 모친 일동이 야외놀이 기금을 수녀원 신축기금으로 50,000원 기증 감사합니다
- 4. 금주 전례: 독서-①유소피아 ②유소피아(노영), 신자들의 기도-김마리아·김말다, 정로사리아
- 5. 사도회 월례회: 3월1일

□ 지난주 봉헌금: 122,545원 어린이헌금: 2,420원 교무금: 63,000원